■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창조론과 진화론　　성경: 시편 14편

Tag: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14:1-7)

진화론은 무지한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했다. 다윈의 진화론이 유명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도 맘대로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살고, 자기보다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억압하고 속여먹고 싶은데 교회와 성경책이 그러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분위기에서 다윈의 갈라파고스 여행 소식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집어넣었다.

다윈이 보기에는 생물들이 자연환경에 맞게끔 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같은 종이지만, 섬마다 환경은 달랐고, 그들은 자연에 적응해서 살면서 그 섬의 특성과 잘 어울리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이 발견한 이유 이외에 더 중요한 메카니즘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진화론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자신의 진화론은 틀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발견된 모든 생명체의 신비를 전혀 모른채 기록된 '종의 기원'은 다윈의 주장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요즘 학계에서는 이미 폐기 됨)

그는 예비 신부로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여행을 마지 못해 하게 되었다.
그는 종의 기원 끝 부부에서 진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조물주가 몇 가지 또는 한 가지 형태로 만든 생명에 최초로 숨을 불어 넣은 이후, 지구가 정해진 중력 법칙에 따라 순환해 온 동안에, 그렇게 간단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형태로 끝없이 진화되었고 진화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관점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다윈 당시의 시대 상황이 기독교 사상이 팽배한 때였으므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당시의 다윈의 신분이 신부였고, 신부였을 당시에도 크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고, 후에는 결국 불신자로 생을 마감하였으니 진화론의 선구자로서의 불명예를 떠 안게 되었다.)
-하지만, 선구자 다윈은 진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 산물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유신 진화론자는 아니다.)
-다윈의 마지막 결론만이 진정한 고백이라 생각한다. 즉, 진화라고

여겨지는 현상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미리 설계된 창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용불용설. (만약 환경이 창조 설계와 맞지 않는다면 그 생물은 멸종하게 된다.)

-이후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추측에 불과하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도킨스는 화려한 말솜씨로 이것을 비켜 가지만, 집단적으로 동시에 DNA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잡종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는 얼마후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과거 진화론자들의 이론들을 거의 폐기처분 하였다. 왜냐면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처럼 비과학적인 진화론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죄성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비과학적인가?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과학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과학자시다.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왜 고생하는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으며, 권세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의 진보가 그토록 느리다.
-또한 인간들의 과학에는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가책 등 삼차원을 초월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왜냐면 이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전지전능 하심, 영원하심,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정의로우신 심판, 사랑 많으심 등 영적인 영역은 전혀 진화론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예부터 사람은 온갖 허구에 가득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존재들이었고, 자신의 상상력이 자극되면서 놀라워하며 신기해 하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존재다. 그런데 도데체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궤변은 가능할지 몰라도 증명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자로 유명한데, 그 사람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기술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읽는 독자는 마치 자신이 그런 과학적인 이론들을 이해하는 과학자나 된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기술로 가득하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과학이란 말장난이 아니다. 몇가지 이론을 책에서 주섬 주섬 읽고 이리 저리 짜 맞춘다고 그럴듯한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윈이나 도킨스나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도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옳은 말이고 기초과학이 아닌 과거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 이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저기서 이론들을 주워다가 짜깁기 한다고 해서 이미 완선된 진화론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마치 무당과 같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진화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 유발 하라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를 뛰어넘는 존재는 '호모 데우스(2010)'라고 명명하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자의 이론을 가만 보면 그냥 인류가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이 D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이야기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호모 데우스'가 아닌 '리얼 호모 사피엔스' 탐구에 한걸음 더 나아갔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책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최근 몇 년동안 모두 부정되었다.(마치 그의 예언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기아는 없다. 역병은 정복된다. 전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류는 똑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현명하고 박식한 사람이 아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왜 없다고 할까? 보이지 않아서?

사람이 그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다. 온갖 기괴한 이야기까지 창작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이유일가?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언자도 많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만지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모든 증언이 기록된 책이 곧 성경책이다. 성경책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른 모든 책들과는 너무도 다른 책임을 깨닫게 된다.

-물론 성경책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하고 있지만, 창조의 원리와 기술을 기록해 놓은 과학서적은 아니다. 창조에 관한 과학은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인류는 이제 겨우 '제임스 웹'을 우주에 띄워서 우주를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띄운 허블 망원경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우주 사진을 보내왔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볼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할 수는 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이 바이러스는 쉴세 없이 자신을 변형시킨다.

-왜 인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주지 않으려 하는가?

-말을 바르게 해야 하겠다. 왜 인류는 하나님의 세계에 끼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께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과학으로 답하실 분이다.
-만약 하나님께 수학적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수학으로 답하실 것이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겸손히 편승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전에는 철이 없어 몰랐다 해도, 이제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여전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기다리고 계신다.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 질문하는자가 누굴까?
-사실 인류는 이렇게 탐구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동안 인류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서 진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탐구하는 자에게 열려계신다. 지혜를 전달해주고 싶어하신다. 모든 주제로 대화하고 싶어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소서.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것은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1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솔루션이 있다.

그것은 이 죄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과학의 막힌 담을 종교로 허무신 셈이다.

-오직 진리가 인류에게 답을 준다.

-뇌피셜이나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상상력 말고, 진정한 해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현재 인류는 핵융합에너지원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을 차세대 녹색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핵융합에너지의 원천기술은 하나님께 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기술을 전수해 주실 것을 믿는다.

-특히 우리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탐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가지고 있다. 창조 이후 첫번째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

모든 거짓 선지자들, 특히 과학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그리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을 발견하게 하소서.

모든 과학자들, 정치인들, 정부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데살로니가전서 성경공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Tag: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4:1-18)

휴거; 세대주의자들의 이론. 비밀재림이라 함. 휴거라는 영화가 인류에게 공포를 줌.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지 않는다. 이중 재림은 성경적이지 않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론이 엉뚱한 이론.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환난을 피해 휴거 한다는 말이 없음.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원수들은 환난 가운데 멸망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재림이 있고 새하늘과 새땅이 열리게 됨.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자는 자들이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배경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A.D. 49-52년) 마게도냐에서 빌립보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다(행 17:1-9).

데살로니가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 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首都)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빌립보 전도 사역 이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 전도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때 다수의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하게 되었다(행 17:4). 그러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길어도 불과 몇 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급기야 가까운 베뢰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행 17:10,15).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이고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데살로니가 재방문 시도는 사단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에 바울은 결국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다(3:2).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귀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한다(3:6 ; 행 18:5).

본 서신은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후 기록한 것이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이다.

디모데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보고받고서 바울은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되었으며, 본 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 및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록된 본 서신에는 일차적으로 신생(新生)된 이방인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4:13-15), 성적인 성결(4:3-8),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4:11,12).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5:19,20)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교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新生)의 이방인 교회로서 교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측면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중에서도 주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바울은 이 문제에 교훈을 집중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의 재림시 이미 잠든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정확한 교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실제

의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차원으로까지 교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서신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성경을 통틀어 유일하게 각 장(章)마다 주의 재림(the Lord's second coming)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1:10 ; 2:19,20 ; 3:13 ; 4:13-18 ; 5:1-11,23).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 때문에,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후서와 더불어 종종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들(Paul's eschatological letters)'이라고 불린다.